■ 법률 칼럼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한인들이 영주권을 가장 많이 취득하는 루트는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입니다. 그리고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오늘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는 경우를 상정하여 점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입국이 세관을, 이민을 거친 합법입국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영주권 신청인은 먼저 본인이 비이민비자 또는 비자면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 세관과 이민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하신 경우는 601A 면제 과정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신분 유지 –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다면 현재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영주권 신청인 미국에 최근에 입국하신 경우는 90일 규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 시 이민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셔야 안전합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의 재정 보증 능력 –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민청원서와 재정 보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개인세보고서 Form 1040으로 재정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개인세 보고서상으로 total income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를 찾으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5.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 기록 –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혹시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연관이 되신 적이 있으신지를 점검을 하시고 만약 범죄를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는 반드시 범죄 관련 케이스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범죄행위가 심각한 경우 즉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 Crime)인 경우는 601 면제를 통해서 면책을 받으셔야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신청인이 기소가 되신 경우가 아니라도 불법행위에 연관된 경우, 예를 들어 프로디 학원 관련 자 분들도 601 면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부분은 불법체류의 문제이지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대장암 검진 (colorectal cancer screening)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정기검진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대장암의 경우 작은 대장용종에서 시작되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암으로 자라기 때문에 미리 대장내시경으로 발견을 한다면, 암으로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검진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대장암 발병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면서 또한 세 번째로 암 관련 사망자수가 높은 암입니다.

2021년 5월에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50세에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4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 케이스는 50세 이후에 생기지만, 암 조기 발견의 장점과 조기 검진의 부담을 고려해 보면 45세에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장단점을 생각할 때 균형에 맞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지침입니다.

대장암 검진 방법은 몇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FIT (fecal immunochemical test)이라 하여 대변검체를 매년 검사하는 방법, 대변 DNA test를 3년마다 하는 방법, CT 대장조영술 혹은 굴곡 S결장경 검사를 5년마다 하는 방법,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10년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변 검사나 CT 대장조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반드시 후속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대장암 검진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그 결정은 환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장암 위험도가 평균인 사람은 보통 75세까지 검진을 계속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76세에서 85세까지는 주치의와 상의 하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85세가 지나면 대장암 검진의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주치의와의 상의 후 검진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